2026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 답

1	④	2	④	3	③	4	①	5	⑤
6	⑤	7	③	8	①	9	②	10	⑤
11	④	12	③	13	②	14	③	15	①
16	①	17	④	18	④	19	⑤	20	③
21	①	22	②	23	②	24	②	25	①
26	⑤	27	②	28	③	29	④	30	④
31	④	32	⑤	33	③	34	②	35	①
36	⑤	37	②	38	④	39	③	40	⑤
41	①	42	②	43	③	44	①	45	⑤

해 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청중이 판정 의문문의 개념을 이해하였는지를 묻고 반응을 살피며 상호 작용하고 있으며, 청중에게 특정 문장이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지를 묻고 반응을 살피며 상호 작용하고 있다. 또한 화자가 청자에게 물음으로써 행동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판정 의문문을 사용할 때, 화자가 대답만을 요구한다고 판단한 청자가 대답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묻고 반응을 살피며 상호 작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발표 내용을 추가하여 청중의 요청에 따르고 있지 않다. ② 발표자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지 않다. ③ 발표자는 발표를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지 않다. ⑤ 발표자는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4문단에서 발표자는 성공적이지 않은 의사소통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을 뿐 화자가 의문문을 사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③ 구체적인 예로 '네가 가게에 갈래?'와 '나랑 같이 가게에 갈래?'를 제시했다. ⑤ 5문단에서 발표자는 비유를 통해, 의도에 맞게 의문문을 사용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의문문의 특징을 이해한다.

ⓒ는 청자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의사를 물음으로써 청자에게 그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쓰인 판정 의문문이다. 따라서 청자에게 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쓰인 설명 의문문이라고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4문단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물음으로써 행동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을 사용할 때는 청자가 긍정의 대답을 하고 화자가 요구한 행동을 수행해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A가 긍정의 대답을 하고 화자가 요구한 행동을 수행해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경우, 청자에게 급식 식단표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쓰인 판정 의문문이다. 이 경우 B가 긍정의 대답을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사회자의 발화에서 토의자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 출처를 확인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사회자는 첫 번째 발화에서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진 폐전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폐전지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토의의 배경과 '폐전지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토의의 주제를 제시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③ 사회자는 세 번째 발화에서 폐전지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토의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며 토의를 이어 가고 있다. ④ 사회자는 두 번째 발화에서 폐전지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학생 1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⑤ 사회자는 네 번째 발화에서 다음에는 폐전지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발화의 양상을 파악한다.

[B]에서 '학생 1'은 주변 수거함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설명하는 글을 함께 제공하면 수거함의 위치를 몰라 폐전지를 분리배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학생 3'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이 폐전지 속 중금속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말한 내용과 관련해 폐전지에서 배출된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되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 폐전지를 분리배출하지 않는 친구들이 폐전지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자신의 주변 상황을 근거로 뒷받침하고 있다. ③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올바른 폐전지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는 내용도 캠페인에 포함하자고 말한 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학생 3'의 의견을 구체화할 방안으로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올바른 폐전지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자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들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 수거함의 위치를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서 제공하자는 '학생 2'가 말한 내용을 긍정하면서 수거함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도 함께 제작하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폐전지 수거함까지의 거리가 멀어 우리 학교 학생들이 폐전지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자료 2]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교에 수거함을 설치하되 보상을 통해 폐전지 분리배출의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자료 3]의 내용과 일반 수거함과 달리 스마트 수거함은 즉시 보상이 가능하다는 [자료 1]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스마트 수거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자료 3]을 활용하여 분리배출한 학생에게 보상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자료 1], [자료 2]를 활용하지 않았다.

7. [출제의도] 같은 형태를 지닌 단어의 품사를 구별한다.

ㄷ의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뿐'의 앞말은 꾸며 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ㄱ의 '대로'는 앞말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앞말과 띄어 쓴 예문의 띄어쓰기는 적절하다. ② ㄴ의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된다는 뜻을 나타내며 체언 뒤에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앞말과 붙여 쓴 예문의 띄어쓰기는 적절하다. ④ ㄹ의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체언 뒤에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앞말에 붙여 쓴 예문의 띄어쓰기는 적절하다. ⑤ ㅁ의 '만'은 앞말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로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앞말에 붙여 쓴 예문의 띄어쓰기는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환경에 따른 중세 국어 단어의 형태 교체를 이해한다.

'나모' 또는 '남'의 형태로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단어 '나모'[나무]는, 뒤에 조사 '와'와 결합할 때는 '나모', 뒤에 조사 '이'와 결합할 때는 '남'의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나모와', ㉡에 들어갈 말은 '남기'이다.

[오답풀이] ② '나모' 뒤에 '이'가 결합한 말은 '나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모' 뒤에 '와'가 결합한 말이 '남과', '나모' 뒤에 '이'가 결합한 말은 '나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모' 뒤에 '와'가 결합한 말이 '남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모' 뒤에 '와'가 결합한 말은 '남와', '나모' 뒤에 '이'가 결합한 말이 '나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피동문의 유형을 이해한다.

제시된 예문은, 피동의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인 피동사를 쓴 파생적 피동문이 아니므로 해당 예문이 파생적 피동문인 ㉠의 예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시된 예문은 피동의 접미사 '-리-'를 붙인 피동사를 쓴 파생적 피동문의 예문에 해당한다. ③ 제시된 예문은 '-되다'를 붙인 피동사를 쓴 파생적 피동문의 예문에 해당한다. ④ 제시된 예문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어지다'를 쓴 통사적 피동문의 예문에 해당한다. ⑤ 제시된 예문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어지다'를 쓴 통사적 피동문의 예문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유형을 분석한다.

제시된 단어는 다른 형태소와 무관하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체가 다른 형태소와 무관하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제시된 단어는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만날 때 교체, 축약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시된 단어는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만날 때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시된 단어는 다른 형태소와 무관하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 13] (사회) 안강현, 『로스쿨 국제거래법』

이 글은 물품 매매 계약의 위험 부담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 거래에서도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에

는 국제 거래에서의 위험 부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CISG에 따르면 위험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계약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이르는 동안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CISG에는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이 규정되어 있다. 위험 이전 시점은 물품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2문단에서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 거래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국제 거래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없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 매매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하였다.

12.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3문단에서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물품은 운송 중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물품에 관한 위험이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해 체결된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이 위험 이전 시점이 된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다. 또한,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 계약의 경우 운송인이 위험 이전 시점을 결정할 수 없다. ② 2문단에서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 거래에서 매매 계약의 물품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품이 특정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에 대한 CISG의 내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논증하는 글의 내용을 생성한다.

3문단에서 CISG의 내용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이동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다. 국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사례를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A가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A와 B의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을 규정한 CISG의 내용을 따랐으므로, A로부터 ○○를 인도받은 운송인이 B에게 운송한 시점에 위험이 A에서 B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③ 2문단에서 CISG에 따르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훼손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태풍에 의한 침수로 ○○가 훼손되었음에도 B는 A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져야 한다.

[14～17] (기술) 왕중린,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

이 글은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는 전자 친화도가 다른 두 물질 사이의 접촉－분리 또는 슬라이딩을 통해 발생하는 마찰 전기를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일부 전자는 한쪽 표면에서 다른 한쪽 표면으로 이동하고, 두 물질이 분리되거나 접촉 면적이 달라지면 전자들이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에는 수직 방식과 슬라이딩 방식이 있는데, 수직 방식은 두 물질이 접촉－분리되면서 두 물질의 표면에 형성된 표면 전하의 거리가 변하고, 슬라이딩 방식은 두 물질 중 한쪽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두 물질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때 발생하는 전위차를 줄여 전기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 전자가 이동하며 전류가 발생한다.

1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전자 친화도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리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비닐은 유리보다 전자 친화도가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자 친화도는 유리가 비닐보다 작고, 유리가 비닐보다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지 못한다.

[오답풀이] ① 물질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 원자로 이루어지며, 물질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인 전자 친화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② 진동이나 압축과 같은 외력이 가해져 두 물질이 접촉하면, 두 물질의 전자 친화도 차이로 인해 접촉면을 통해 전자가 이동한다고 하였다. ④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효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15.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수직 방식은 두 물질이 수직으로 접촉하고 분리되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전기를 발생시킨다. 슬라이딩 방식은 두 물질이 접촉한 상태에서 한쪽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며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 둘은 모두 접촉에 관련된 기계적 움직임을 전자의 이동이라는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한 상태에서 한쪽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슬라이딩 방식에 해당한다. ③ 수직 방식과 슬라이딩 방식 모두 전기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두 물질 사이에 전하가 이동한다. ④ 수직 방식과 슬라이딩 방식 모두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다. ⑤ 수직 방식에서 진동이나 압축과 같은 외력이 두 물질을 접촉하거나 분리되게 만들고, 슬라이딩 방식에서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이동이 두 물질의 접촉 면적을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만든다.

16.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추론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평한 면으로 보이는 물체도 미세하게 보면 표면에 존재하는 높낮이가 균일하지 않아 일부 지점만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물질의 접촉면에 균일한 높낮이를 갖는 미세한 나노 패턴을 만들면 유효 접촉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유효 접촉 면적이 늘어나면 접촉점이 더 많아져 접촉면에 더 많은 표면 전하가 형성될 수 있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⑤ 접촉면에 균일한 높낮이의 미세한 나노 패턴을 만드는 것이 물체에 존재하는 높낮이의 차이를 극대화하지 않는다. 또 불필요한 전자의 이동을 막는 것도 아니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의 실험은 슬라이딩 방식의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에 해당한다. 바람개비의 회전에 따라 비닐과 유리의 접촉 면적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전위차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고 하여 비닐이나 유리의 전자 친화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람개비의 회전 방향이 바뀌어도 비닐의 전자 친화도가 유리보다 크기 때문에 비닐의 (－) 표면 전하와 유리의 (＋) 표면 전하는 서로 바뀌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비닐과 유리가 접촉한 상태에서 비닐의 전자 친화도가 유리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는 비닐 쪽으로 이동하여 비닐에 (－)의 표면 전하가, 유리에 (＋)의 표면 전하가 형성될 것이다. 이때 외부 도선을 통해 전자는 이동하지 않는다. ② 바람개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접촉 면적이 달라져 전위차가 발생하고 외부 도선을 통해 비닐에서 유리 쪽으로 전자가 이동할 것이다. 이때는 전류가 양의 값으로 측정된다고 하였다. ③ 바람개비가 빠르게 회전하면 접촉 면적의 증가와 감소가 빠르게 반복되어 전류 방향의 전환 주기가 짧아질 것이다. ⑤ 구리는 비닐보다 전자 친화도가 작고, 유리보다 전자 친화도가 크다. 따라서 구리와 유리가 접촉하면 접촉면을 통해 구리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구리의 표면에 (－)의 표면 전하가, 유리의 표면에 (＋)의 표면 전하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바람개비의 회전에 따라 외부 도선을 통해 (－)의 전하가 이동할 것이다.

[18～23] (인문 주제 통합) (가) 생명 중심 윤리 / (나) 생태 중심 윤리

(가) 생명 중심 윤리

이 글에서는 테일러를 중심으로 생명 중심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한다.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가 그 자신에게 좋은 것, 즉 선을 갖는다면 도덕적으로 고려할 고유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선은 주관적인 믿음이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이며 생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네 가지의 일반적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 의무는 불침해, 불간섭, 성실, 그리고 보상적 정의로,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만 해당 의무를 갖는다. 네 가지 의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불침해의 의무가 가장 우선한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 의무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선을 갖는 존재의 중요한 이익에 영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성실의 의무에 우선하고 성실의 의무가 불간섭 의무에 우선한다.

(나) 생태 중심 윤리

이 글에서는 레오폴드를 중심으로 생태 중심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태 중심 윤리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레오폴드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생명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에,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생태계라는 전체는 개별 구성 요소를 넘어서는 독립된 존재로, 개체가 생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개체를 규정한다. 이에 따른다면 생태계는 독자적인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생태 중심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 중심 윤리는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생태계를 살아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간이 생태계에 부여하는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며 광범위한 영역의 환경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그러나 생태 중심 윤리는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체의 권리나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생태 중심 윤리를 환경 파시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18.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가)는 개별 생명체가 선을 갖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테일러의 견해를 제시하고, (나)는 생태계가 독자적인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레오폴드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에 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에는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는 생명 중심 윤리를 비판하는 생태 중심 윤리의 관점이 제시되어 있지만, (가)에는 생명체에 대한 특정 학자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적 가정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가)의 4문단에서 불침해 의무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로, 가장 우선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 의무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선을 갖는 존재의 중요한 이익에 영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성실의 의무에 우선하고 성실의 의무가 불간섭 의무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불침해 의무에 우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2문단에서 어떤 존재에게 객관적으로 선이 되는 것은 그 존재가 선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어떤 생명체에 관한 지식을 얻을수록 인간은 그 생명체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더 적절하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③ (가)의 3문단에서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선을 갖는 생명체에 대한 네 가지의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인간이 어떤 생명체에도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불침해 의무이다.

20. [출제의도] 글의 생략된 전제를 파악한다.

(나)의 2문단에서 개별 생명체의 기능은 생태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늑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개별 생명체인 늑대의 기능을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생태계가 개별 생명체를 규정한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생태계의 온전함을 해치는 동물을 선별해 죽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체의 생존이 생태계의 보전과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생태계라는 전체는 개별 구성 요소를 넘어서는 독립된 존재이다. 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생태계의 각 요소들은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개별 생명체 역시 다른 생명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서로 다른 입장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가)에서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는 선을 가지며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선을 갖는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다. (나)에서 레오폴드는 생태계라는 전체는 개별 구성 요소를 넘어서는 독립된 존재라고 보았다. 이에 따른다면 생태계는 독자적인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이나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들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 내용에 대해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을 지닌 개별 존재들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 주장에 테일러는 동의하고 레오폴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2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성실의 의무는 그 대상을 야생 동물로 국한하여, 야생 동물을 기만하거나 배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보기>의 A는 식물이므로, 테일러는 A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생명체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생명체에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불침해 의무를 갖지만 인간이 유발하지도 않은 피해까지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테일러는 A로 인해 다른 식물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인간이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이다.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레오폴드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레오폴드는 A가 다른 식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 하천 변 생태계에 해가 되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볼 것이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생태계의 보전을 위협하는 개별 생명체를 선별해 죽일 수 있다.

23.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밑줄 친 ⓑ의 '막는'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못 하게 하는'의 의미이다. ②의 '막았다'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못 하게 했다'의 의미이므로 ⓑ의 '막는'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24～27] (독서·작문) (가) 예산의 편성·운영과 주민 참여 예산 제도 / (나) 한정된 예산에서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

(가) 예산의 편성·운영과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이 글은 예산 편성·운영의 중요성과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이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개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패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이 가능해져 공동의 선을 꾀할 수 있다.

(나) 한정된 예산에서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

이 글은 한정된 예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자기 이익 추구로 공유 자원 자체가 고갈되는 문제를 가리킨다. 한정된 예산에 대해 각 집단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더 많이 배분될 것을 요구하면 예산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전체의 이익은 훼손될 수 있다. 또 예산 배분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나 구성원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가)의 3문단과 4문단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3문단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들의 선호를 반영하고,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나)의 1문단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유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소비하려 한다고 하였다.

25. [출제의도] 글을 읽는 방법을 파악한다.

(다)에서 현재의 학생 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된 불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건의한 개선안이 수용되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인근 학교의 사례를 들어 학생 참여 예산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의 2문단에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때 예산을 집행한 결과는 시민들의 더 높은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며 읽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의 4문단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공개와 참여를 통해 공공 서비스 공급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정의 책임성보다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라 건의문을 작성한다.

(다)의 5문단에서 개선 방안이 수용된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 의식도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기대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 참여 예산제가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건의 수용에 따른 기대 효과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다)의 1문단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생 참여 예산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려는 의도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2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가)의 4문단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공개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이 가능해져 공동의 선을 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보기>와 연결 지어 공개와 참여가 무리한 예산 요구를 자제시키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예산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예산 배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무리한 예산 배분 요구를 자제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산에 관한 정보 공개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개별적 이익과 전체적 이익을 정확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다.

'Ⅲ. 조사 결과'에서 연간 ○○로에서의 자전거 대 보행자 간 교통사고 건수를 보여 주는 통계 자료를 통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해결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조사 내용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전문가의 인터뷰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도로 정비 및 관리의 미흡으로 자전거 대 보행자 간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문헌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있지만 이는 ○○로의 사고 현황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9. [출제의도] 보고서의 글쓰기 내용을 생성한다.

'Ⅲ. 조사 결과'의 '2. 사고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 중 통행 구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언급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Ⅲ. 조사 결과'의 '1. ○○로의 자전거 대 보행자 간 사고 현황'에서 최근 4년간 자전거 대 보행자 간에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를 통해 ㉠을 자전거 대 보행자 간 교통사고 건수 변동 추이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Ⅲ. 조사 결과'의 '2. 사고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중 첫 번째 문단에서 도로의 정비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서술하여 ㉡을 도로 정비 및 관리 미흡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Ⅲ. 조사 결과'의 '2. 사고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중 두 번째 문단에서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서술하여 ㉡을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Ⅲ. 조사 결과'의 '2. 사고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중 네 번째

문단에서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서술하여 ㉢을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고쳐 쓴다.

초고의 결론 부분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것이 학생들의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조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조사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조언은 적절하다. 또한 초고에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조사 결과 부분에서 제시했던 해결 방안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보기>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라는 조언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초고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의미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으며, 조사를 통해 ○○로의 사고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조사의 의의가 초고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사의 의의를 제시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③ 초고의 결론 부분과 <보기>에서 모두 문제 해결의 주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 해결의 주체를 추가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초고와 <보기>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31 ~ 33] (고전 소설) 작자 미상, 「김학공전」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국문 소설이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가 군공을 세우거나 납속을 통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기도 하는 등 신분 질서가 크게 동요하였다. 이 소설에는 이러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신계후전」, 「박만득전」, 「탄금대」와 같은 일련의 '추노계 소설'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전통적인 주종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과의 이산, 남녀 간의 애정과 이별, 악인에 대한 복수, 주인공의 입신양명 등 다양한 흥미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다. 주인공 김학공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문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모반을 일으킨 노비들을 피해 도망친다. 그 과정에서 학공은 가족들과 흩어지고, 정체를 숨기고 떠돌던 중 우연히 계도라는 섬에 들어가 김동지와 인연이 되어 동지의 딸 별선과 혼인한다. 결혼 생활을 하던 중 계도에 살던 노비들에게 정체가 탄로 나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별선의 희생으로 목숨을 구한다. 이후 황 승상의 양자가 되고 임 감사의 딸과 결혼한 뒤 과거에서 장원 급제 하여 강주 자사를 제수받는다. 강주로 가던 중 가족들과 재회하며, 계도로 가 자신을 죽이려 한 노비들을 응징한다. 복수 이후 학공은 죽은 별선의 넋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별선은 되살아나 학공과 함께 오래도록 해로한다.

3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별선은 학공에게 여자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물가로 가서 슬피 울면 물 지키는 관리가 올 것이고, 그 관리에게 죽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물을 건너가야 한다고 부탁하면 물을 건너게 해 줄 것이라고 알려 준다. 이로부터 별선은 곤경에 처한 여인이라면 관리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별선은 잔치를 배설한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학공에게 알려주지 않고 작은 잔으로 술 삼 배만 먹으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학공이 잔치에 가는 것을 별선이 만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② 별선은 학공이 처한 상황에 슬퍼하고 있을 뿐, 그에게 용서를 빌고 있지는 않다. ③별선은 학공이 노비들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은 죽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32.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파악한다.

학공의 꿈속에서 별선은 학공이 어여쁜 새 아내를 얻고 자신의 혼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별선은 그 상황에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이내 학공을 이해하고 마지막까지 그의 행복을 빌어 주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 별선은 이미 죽어 버린 자신을 '떨어진 꽃'으로, 학공의 옆에 있는 새 아내를 새로 '피는 꽃'으로 비유하여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어여쁜 새 아내를 생각하는 학공의 모습을 이해하려 한다.

[오답풀이] ② 별선은 헌신적인 인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끝까지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인물이다. 평생 자신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에 따르면 조력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별선은 학공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학공과 서로 옷을 바꾸어 입고 노비들에게 정체를 속일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별선이 학공에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에 따르면 주인공은 개인의 목표와 사회적 위업을 달성한다. 학공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모친과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한 데에 슬픔을 표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가족의 복수라는 개인의 목표임을 알 수 있다. ② ⓑ에 따르면 소설의 배경인 조선 시대 후기는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였다. 소설의 학공은 자신을 섬기던 노비들이 모반을 일으켜 섬에까지 도망을 왔으며, 섬에서도 노비들에게 정체를 들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를 ⓑ와 관련지어 보면, 신분 질서가 흔들리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에 따르면 조력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공을 대신하여 목숨을 잃은 별선이 사후에도 꿈에서까지 등장하여 학공에게 과거 시험의 소식을 알려 준 것에서 죽음 이후에도 학공의 삶에 개입하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4 ~ 38] (갈래 복합) (가)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나) 박인로, 「자경」/(다) 박세당, 「효애오잠」

(가)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화전가는 조선 후기에 널리 창작된 가사의 한 유형으로, 여성들이 봄날의 화전놀이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삶의 애환을 다룬다. 「덴동어미화전가」는 화전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덴동어미'라는 한 여성의 험난한 인생 여정을 통해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이 작품은 독특하게도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 청춘과부와 덴동어미의 대화가 외화에 해당한다. 외화에서 청춘과부는 자신의 서러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재혼을 해야 할지 고민을 토로한다. 그 말을 들은 덴동어미는 자신의 기구한 일생담을 들려주며 청춘과부의 재혼을 만류한다. 여기서 덴동어미가 들려준 자신의 일생담이 작품의 내화가 된다. 지문에 실린 내용은 작품의 말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덴동어미가 자신의 일생담을 들려준 후 인생의 기쁨과 근심, 행복과 불행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교훈을 청춘과부에게 이야기하자, 청춘과부가 깨달음을 얻어 근심을 해소하고 기쁨을 표출하는 대목이다. '덴동어미'는 '덴동이의 엄마'를 이르는 말로, 덴동이는 '불에 덴 아이'를 뜻하는데 덴동어미가 나이 오십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 화재 때문에 화상을 입어 장애를 갖게 된 것에서 비롯한 이름이다.

(나) 박인로, 「자경」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무신이자 시인인 박인로(1561 ~ 1642)의 연시조로, 총 3수로 구성되어 있다. <제1수>는 '명경'(거울)과 '명덕'(유교의 도덕)을 대비하여, 명덕을 닦는 일에 무관심한 당대의 세태를 안타까워하면서 비판한다. <제2수>는 유교의 도덕을 실천하는 일을 '크나큰 한 길'에 빗대고, 그 길을 오고 가는 행인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가 외면받는 세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제3수>는 경세제민(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함.)의 포부를 가상의 배인 '제세주'에, 화자 자신을 '사공'에 빗대어 경세제민의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다) 박세당, 「효애오잠」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문인인 박세당(1629 ~ 1703)의 한문 수필이다. 글쓴이는 선문자와 부구공의 문답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한다. 작품의 주제 의식은 선문자의 질문에 대한 부구공의 답변을 통해 제시되는데 그 내용의 요점은 '훌륭한 사람(군자)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가려서 받아들여야 한다.'로 정리된다. 타인의 평가를 가려서 받아들여야 하는 까닭은, 타인의 평가를 듣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얼굴이 깨끗해지려면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하지만, 자신의 얼굴이 깨끗한지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아야만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타인의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이 군자인가 소인인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해서, 군자의 칭찬을 들으면 기뻐해야 하지만 소인에게 칭찬을 들으면 근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군자의 칭찬은 나 자신이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만, 소인의 칭찬은 나 자신이 소인배와 가까운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타인의 평가를 '가려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의 뜻이다. 제목인 '효애오잠'은 '「애오잠」이라는 글을 본떠서 짓다.'라는 뜻인데 「애오잠」은 고려 말기의 학자이지 문인이었던 이달충(1309 ~ 1385)의 「애오잠병서」를 가리킨다.

3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 화자는 고운 꽃도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인다라고 말하고, 새소리도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고쳐 듣고 슬픈 마음절로 나네'라고 말하면서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쁨과 슬픔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음을 알려 주면서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제시한다. (나)에서 화자는 명경은 사람들이 '값 주고 닦을 줄' 아는 반면 '값 없이 닦을 명덕'은 '닦을 줄을 모르는도다'라고 말하면서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명덕을 닦으며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제시한다. (다)에서 글쓴이는 군자가 평가하는 상황과 소인이 평가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타인의 평가를 가려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군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을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가)~(다)의 공통점이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③ (가)~(다) 모두, 대상이 지닌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명령형 표현은 (가)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와 같은 구절에 쓰이고 있으나 (나)와 (다)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다) 모두, 자연 경관의 순차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가)에는 '춘삼월', '삼동설한' 같은 말에서, (나)는 '종일'과 같은 말에서 발견되나 (다)에는 쓰이지 않았다.

3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명경'은 깨끗한 거울이라는 사물 자체를 가리킬 뿐이며 마음을 비유한 소재는 아니다. 아울러 '명경'이 소재로 쓰인, (가)의 <제1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데 소홀한 당대의 세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경에 마음을 빗대어,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성찰을 드러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팔덕문'은 가상의 관문으로, 유교의 8가지 윤리를 비유한 말이다. 이러한 팔덕문으로 가는 길을 '크나큰 한 길'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유교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넓은 길을 걷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팔덕문'으로 향한 길을 '크나큰 한 길'이라고 한 것을 통해 유교의 8가지 윤리가 사람들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보기>를 참고할 때, 사공이 '제세주를 만들어 내'었으나 '강가에 버렸'다는 말은 화자가 세상을 구제하려는 포부를 지녔으나 그 포부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사공도 못나서'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포부를 이루지 못한 이유를 화자 자신의 부족함에서 찾는 자기 성찰적 태도를 보여 준다.

36.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파악한다.

'청춘과부'(ⓐ)는 대화 상대방인 덴동어미의 말을 들은 후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얼시고나 좋을시고'라고 말하며 기쁨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선문자'(ⓑ)도 대화 상대방인 부구공의 말을 모두 듣고 나서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와 ⓑ 모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이후 기쁨의 정서를 표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③ ⓑ는 부구공의 말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그대는 정말이지 근심과 기쁨이 없다는 말이오?'라고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에 의문을 표한다. 그러나 ⓐ가 덴동어미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37. [출제의도] 구절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은 청춘과부의 마음이 봄과 같고, 그의 예쁜 얼굴이 꽃과 같다는 뜻으로, 덴동어미의 말을 듣고 활짝 깨달아 화자(청춘과부)의 마음속에 일어난 기쁨의 정서를 드러내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아쉬움의 정서와는 무관하며, 젊고 어여쁜 시절이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에서 화자는 삶은 팔자, 즉 운명에 따른 것이므로 좋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나타낸다. ③ ㉢에서 화자는 덴동어미의 말을 봄에, 자신의 생각을 꽃에 빗대어, 봄을 맞이해 피어난 꽃처럼 덴동어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에 일어난 변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다)의 글쓴이는 부구공의 목소리를 빌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부구공은 군자의 칭찬과 소인의 비난은 내가 군자임을 알려 주는 것이므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군자의 비난과 소인의 칭찬은 내가 소인임을 알려 주는 것이므로 근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글쓴이가 '실상을 아는 것은 남에게 있으니' '가릴 바'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 바의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자가 나를 소인이라고 평가하여 근심하게 되는 것은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를 가려서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행동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⑤ (다)에서 '근본은 나에게 있'으므로 '힘쓸 바를 알지 않아서야 되겠소'라는 표현은, 군자가 되기 위한 근본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으므로, 군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뜻한다.

[39～42] (현대 소설) 송기숙, 「도깨비 잔치」

이 작품은 광복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세대 간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성호 할아버지와 동곡 할아버지는 친일 관료 카네야마에 의해 각각 아들을 잃은 인물이다. 한편, 카네야마의 아들 김학모가 교육계에서 승승장구하는 것과 교장 승진을 위해 김학모에게 잘 보이려는 성호 아버지의 모습은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 사회와, 출세를 위해 가족의 아픔도 저버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나타낸다. 김학모는 성호와 자신의 딸을 결혼시켜 친일 관료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지우려 한다. 성호는 그 의도를 눈치채고 이를 경계하지만, 윤주를 향한 애정과, 과거를 잊고 현실을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고민한다. 성호는 윤주를 향한 마음과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할아버지와의 동행을 통해 삶의 방향을 깨닫는다. 작가는 인물 간의 갈등과 성호의 인식 변화를 통해 '도깨비'로 가득찬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 사회가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A]에는 동곡 할아버지 탈상에 동행하자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듣고 당황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긴장하는 성호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아버지의 거듭된 질문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답을 둘러대는 아버지의 대화 과정에서 인물의 갈등 양상이 드러난다.

40. [출제의도] 대화의 기능을 파악한다.

㉤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라고 말한 것은 실제 일의 중요도를 할아버지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성호의 약혼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동곡 할아버지의 탈상에 함께하지 못함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어 얼버무린 것이다. 중요한 일, 즉 성호의 약혼식 진행을 위해 할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으므로 말끝을 흐리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은 할아버지가 성호의 약혼식을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성호가 약혼식을 강행하자는 아버지의 요구에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의 약혼식을 강행하자는 아버지의 요구와, ㉢의 동곡 할아버지 탈상에 동행하자는 요구 사이에서 성호는 결국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성호는 할아버지의 위압에 못 이긴 척 할아버지 앞장을 섰다', '성호는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았다.'와 같은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파악한다.

ⓐ의 경적 소리는 동곡 할아버지의 탈상에 동행하는 문제로 진행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화를 중단시키고, ⓑ의 커엄 소리는 어머니가 성호에게 하려던 귓속말을 할 수 없게 한다.

[오답풀이] ③ ⓐ는 성호 할아버지를 모시러 자동차가 왔음을 알리지만, 그것이 성호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는 일어난 일에 대한 성호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성호가 '수모를 삼키고 식을 올리겠다'고 하는 김학모를 '배짱과 집념'을 지닌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김학모가 아버지의 과오로 인해 겸허하게 비난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수모를 참고 보란 듯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겠다는 야망을 지닌 인물임을 깨닫고 허탈해하는 성호의 인식을 드러낸다.

[오답풀이] ① 성호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린 것은, 할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혼식을 진행하려는 아버지의 의도가 학무국장인 김학모에게 환심을 사서 출세하기 위함임을 짐작했음을 드러낸다. ⑤ 성호가 동곡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갈매나무'를 생각하고 몰려드는 정감에 옷깃을 여민 것은, 고고하고 정갈한 삶을 산 동곡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성호의 마음을 드러낸다.

[43～45] (현대시) (나) 이동순, 「필라멘트」/(다) 이문재, 「마지막 느림보 – 산책시 3」

(나) 이동순, 「필라멘트」

이 시는 일상에서 사소하게 지나치는 사물인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그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불투명한 유리공 속에서도 빛을 내는 필라멘트의 속성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절의와 지조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시에서 나타나는 '그대'는 불의의 시대를 지키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사물로서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함의한다. 이 시는 이러한 비유를 활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다) 이문재, 「마지막 느림보 – 산책시 3」

이 시는 도시의 부정적인 속성에 주목하여 화자의 새로운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도시의 사람들이 아무도 걷지 않으며, 내쳐 달리거나 길바닥 위에서 쓰러질 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도시적 삶이 제시하는 속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도시적 삶과 대비되는 '산책'은 도시의 이러한 생태에 위배되는 행위이자 도시의 속도에서 벗어나 실상을 알게 하는 행위로 표현된다. 화자는 느슨하게 걷는 '산책자'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도시에 대하여 '산책의 거대한 묘지'라고 표현함으로써, 당대 사회 및 문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다)에서는 '이 도시는 느슨한 산책을 아주/싫어하는 모양입니다', '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와 같이 한 문장의 중간에서 행을 나누고 있다. 이를 통해 '싫어하는', '인정하지 않으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시행의 첫머리에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는 '어둡고', '반짝이는'의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통해 대상의 의미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는 '온갖 협잡의 시대를 감당해 내며 비오는 저녁 쓸쓸한 골목에 서서' 백열등이 보내는 빛을 표현한 것이다. '그'가 서 있는 곳은 '그'가 직면한 현실을 의미하며, ⓐ는 그러한 현실을 감당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답풀이] ② ⓑ는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다)에서 '도시'를 '거대한 묘지'로 표현한 것은 속도에서 벗어나 '산책'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꼿꼿하여 흩어지지 않'는 대상의 자세는 부정적 현실에 굴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